

“정기적 건강 검사와 규칙적인

- 친구의 권유로 받은 건강검사에서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토해낼 것처럼 꾸무럭거리는 하늘, 그 아래로 차운 바람을 타고 소금기어린 인천바다 냄새가 코를 스친다.

미처 마감하지 못한 마른 나뭇잎은 이리저리 굴리고 날리고…….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옷을 뚫고 스미는 찬바람을 위로한다.

그런 외피적인 계절변화와 관계없이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간 기능



생활태도만이 건강을 보장합니다”

간기능 장애를 발견, 투병중인 육인용씨

것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육신의 고통은 이 꾸무럭거리는 날씨만큼이나 차운 바람을 몰아다 주겠지…….

이런 생각에 젖으면서 건협인천지부를 방문한 기자는, 친구의 권유로 건협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다가 간기능이상을 발견 투병생활을 해오고 있는 육인용씨(43,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858번지)를 만났다.

친구의 권유로 받게된 간염검사

순박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이제 병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건협에서 검사를 받게 된 동기는?

『올해 1월이었죠.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대한염업노조 사무실에 놀러왔다가 그 친구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건강관리협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날 간염검사를 처음 받았습시다.』

그러나 그는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 많이 받고 있는 간염검사는 한번쯤 해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고 한다.

검사결과 “항원양성”이었지만 …

『얼마 후 친구가 전화를 했더군요. 검사결과 “항원양성”으로 간염에 걸려있는 상태니 간기능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간에 이상이 있으면 식욕도 없고, 술을 마시면 유난히 피로하다는 등등의 얘기



◀ 친구의 권유로 같은 건물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간염검사를 받았습니다.

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런 증상들이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나아지겠거니 생각해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과음 속에도 별 증상은 없었습니다

너구나 그는 술을 아주 즐기는 편이었기 때문에 술은 곧 친구나 다름없었고, 연속되는 과음 속에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술을 끊는다거나, 재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버렸다. 그는 외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없어도 속으로 깊어지는 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건협에서의 재검사에서 간기능 이상이 …

『저의 그런 태도가 걱정스러웠던지 그 친구가 몇번 전화를 하더군요. 친구의 권유도 있고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건협을 찾아와 간기능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GOT200, GPT218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마음이 여간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의 눈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올랐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웃었던 친구들의 얼굴도 스쳐지나 갔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깊어지는 성인병

건협 인천지부 검사소장은, 『육인용씨의 경우, 모든 수치가 정상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간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인병의 무서운 점이 바로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서도 병이 깊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지나치게 되죠.』라고 육인용씨의 검사 당시의 상황과 함께 성인병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다.

마음을 새롭게 먹었습니다

『사실 전 보통 애주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몽땅 끊어야 한다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모두 끊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고 웃으며 말한다.

『권유를 받은대로 검사결과서를 들고 인천의 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간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니다. 결과는 건협에서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한 투병생활

그의 투병생활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평소의 생활패턴을 180°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꼼짝말고 쉬는



▶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헛구역질이 나는 경우,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버리기 쉽다.

것이 최선이라는 말에 따라 그는 그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직장도 그만 두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친구 만나는 일을 줄인 겁니다.

제게 있어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곳 술을 마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노력에 따라 불가능이란 것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쾌활하게 웃는 육인용씨를 보면서, 기자는 그의 웃음이 얼마나 큰 노력의 댓가인가를 알 수 있었다.

올바른 자신감은 근거가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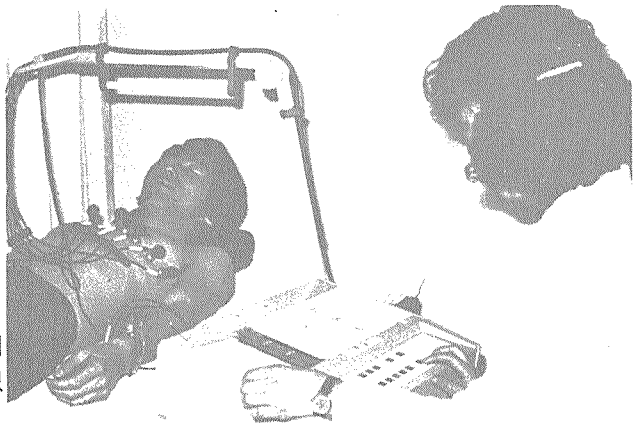
그는 계속 얘기한다.

『술을 끊고나니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평소 즐기던 낚시에 매달렸죠. 그것이 최대의 소일거리였습니다.』 그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으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평소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고, 특히 건강에 관한 한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건강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병”이란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라면서,



▶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야 가질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계몽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즉 정기건강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먼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인다.

건협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매달 건협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스스로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겠구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건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나는 노력만이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건협 인천지부 검사소장은 『지금까지 매달 한번도 빼어놓지 않고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라며 육인용씨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본다.

한편 육인용씨는, 『건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처럼 질병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홍보계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라며 건협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여전히 싸늘하게 불고있는 바람이 결코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어떤 목적을 달성키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새롭게 배웠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하며 발을 옮기는 기자의 마음은 가볍기만 했다.